

여성



성큼다가선 가을!! 가슴속에 따뜻함이 그리워 집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간식도 든든히 해야 할때입니다. 신라명과 고기만두, 양금만두는 만두 본래의 맛을 내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모두가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피의두께가 일정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속이 알차야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부드러운 살코기가 듬뿍 든 고기만두, 부드럽고 달콤한 팔랑금이 듬뿍 든 양금만두, 올해에도 든든하고 훈훈한 계절의 미각으로 여러분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 따뜻하게 먹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신라명과

- 제과업계 프랜차이즈 사업에 동참하실 활동적인 사업주를 모십니다.
- 문의전화 ● 사업기획실(02)534-3251/4 ● 부산영업소(051)503-3812/3 ● 영남사업본부(0599)32-0404

특·집 제31회 전국여성대회

94.11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세계속의 발효기술, 발효조미료

■ 세계속의 발효조미료

국내 최초로 해외에 플랜트를 수출한 바 있는 미원의 발효조미료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 세계수준의 발효기술, 식품업계 최초 국제품질인증 ISO 9002획득

간장, 된장과 같이 발효조미료는 미생물 발효를 통해 얻어집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을 발효시켜 구수하고 감칠맛나는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 냅니다. 이 글루타민산이 바로 발효조미료의 주성분입니다.



1994년 4월, 발효조미료의 제조, 출하, 품질관리 전 시스템이 세계수준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받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하였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85년 역사의 감칠맛 조미료

1909년 동경대 아케다 박사가 다시마의 구수하고 감칠맛이 바로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에문이라는 것을 밝혀 낸 이래 글루타민산은 감칠맛 조미료로써 변함 없이 널리 응용되어 왔습니다.



■ 발효조미료의 안전성 입증

주성분인 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인체 안전성은 UN을 비롯한 세계 공식기구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 UN과 주요국가 공식기구의 인정
1987. 2. UN의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는 인체에 안전하며, 일일섭취허용량 (ADI)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not specified)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공동체 과학위원회, 일본 후생성, 호주 정부 등 주요국가의

공식기구들도 모두 인체 안전성을 인정하고, 일일 섭취허용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보사부
1986. 2. 발효조미료 주성분인 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며, 사용에 제한이 없는 안전한 식품첨가물임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993. 12.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해로운 성분인 것 처럼 표시한 일부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그 안전성을 재입증하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에미노산조미료대행



월간 여성

월간여성 11월호 통권324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4 **女聲**
여성들의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 제31회 전국여성대회/이연숙

특집/제31회 전국여성대회

- 6 <치사>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김영삼 대통령
- 8 <화보>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 12 <수상자 프로필>
웅신봉시상·올해의 여성상
- 14 <주제강연>
공영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백영옥
- 28 <발제강연>
비람직한 후보자의 요건/주준희
공영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의식개혁/강경화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김선옥
- 36 <결의문·건의문>
제31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건의문
- 38 <만나고 싶습니다: 전제회 광명시장>
- 42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
- 46 <전국여성대회 참석 소감>
- 50 여성초점1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 초청간담회
- 52 여성초점2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54 마스크에 비친 여성/김희천
오도되는 여성들의 삶의 형태
- 60 해외여성통신/이영남
여성고용촉진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 64 여성계 동향/황금희
- 68 협의회 소식
- 70 우리들의 광장

脫我(off self)
홍정희 작



이연숙 (본회 회장)

여성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이 대회는 다음 한해의 여성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한해동안 이룩한 여성활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자기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 온 자원지도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로서도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모임의 결집된 힘은 오늘의 여성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을 모신 가운데 제31회 전국여성대회를 거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라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여성을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통령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결정직에의 여성 참여를 적극 추진하시며, 최근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21C 위원회에도 여성을 15% 임명함으로써 대여성공약사항의 실천의지를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마다 여성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점검으로 앞으로 여성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른 한번째를 맞이한 전국여성대회는 지난 30년간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전국에서 여성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회는 다음 한해의 여성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한해동안 이룩한 여성활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자기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 온 자원지도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로서도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모임의 결집된 힘은 오늘의 여성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전국여성대회를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뭉쳐진 힘으로 건의해 온 의견들이 많은 부분 정책화되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긍지를 느끼며, 이를 가능케 힘을 자발적으로 모아주신 여성대표 여러분의 노력이 자랑스롭습니다.

내년의 UN 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여성발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할일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직에의 참여비율을 보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이나 대외 경제력등 선진화 수준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는 내년에 4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선거법으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우리 여성계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의 정치소외를 가중시켜온 불법, 타락,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년 선거를 통해 '깨끗한 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모두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여성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년 여성대회 이후 여성계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이의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내 여성특위 신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국회내 여성특위가 여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지난 해 이후 여성계의 큰 변화로서 그동안 목표는 같으나 활동의 양상이 달라 단합된 여성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못했던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축하하는 모임'을 범여성단체의 이름으로 주최했는가 하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범여성단체 차원으로 창립되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단체들은 같은 목표에 같은 목소리로 힘을 배가시켜 나가는데 전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정부 제2장관실과 국회의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힘을 합친 여성단체 연대 등은 여성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백영옥 박사님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봉사활동에 몸바쳐오신 황운순 선생님께 제30회 용신봉사상을 드리고, 문학사에 길이남을 저작 '토지'를 완간하신 박경리 선생님께 제10회 올해의 여성상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설프로인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전제희 광명시장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슬기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전체 여성지도자들과 훌륭한 견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부터 20만 교포여성을 대표해 재일대한민국부인회의 최금분 회장님께서 이 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것을 환영하며 고국여성들의 따뜻한 자매애를 재일대한민국부인회 회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통령 각하 내외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전국 여성지도자 여러분!

오늘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른 한번째 맞는 전국 여성대회는 해마다 시의적절한 주제와 알찬 진행으로 대회의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용신봉사상을 받은 황은순원장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심 평생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해 오셨으며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그 봉사정신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여성상'을 받으신 박경리 여사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4반세기에 걸쳐 '土地'를 집필하신 그 열정과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土地'는 우리의 긍지와 자랑이요,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저는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이 당당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기관장에도 여성이 임명되는 등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권이 달라지고,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1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대상 아동의 95퍼센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는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깨끗하지 않고는, 우리는 선진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공명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가 그 출발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법들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개혁 관련법입니다.

지난 8월의 보궐선거를 통해 경험했듯이 정치개혁법은 돈 안쓰는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선거법은 무서운 법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보니 혁명적인 내용임을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부패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참신한 사람이 돈 없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정부는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1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대상 아동의 95퍼센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을 먼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여러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흑색선전, 인신공격, 자금살포는 유권자가 감시해서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평가해서 투표하는 선진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돈 안쓰는 선거와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등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네번의 지방자치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의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지방화 시대는 여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지한 논의가 공명선거 정착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저는 작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국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을 당면한 3대 과제로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그와 같은 당면과제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에는 여성 여러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낼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건강해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승해서 과소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특히 여성 여러분이 근검절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인 가족윤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일련의 반인륜적 사건들을 보면서 가정의 파괴와 사랑의 상실이 엄청난 사회적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사회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가정을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일에 여성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지고 도덕과 양심이 바로 서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냅시다. 기초질서를 내가 먼저 지켜야 하며, 전도된 가치관을 내가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이야말로 이러한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다 따뜻한 사회,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대회전경



▲단체기 입장



▲대회 참석자들로부터 박수환호를 받자 이에 답례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이연숙회장의 대회사



◀국기에 대한 경례



▲용신봉사상을 수상하는 황은순 선생님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는 박경리 선생님



▲김영삼 대통령의 치사



▶대회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



▲주제강연



▲발제강연



◀결의문·건의문 채택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청인사
전재희 광명시장



◀100초 발언대 발언모습

제30회 용신봉사상 수상자



성명 : 황은순(黃溫順)
 생년월일 : 1903. 7. 10(만 91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3-7
 직업 : 한국보육원 원장

학력 및 경력

1927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졸업
 1941년~1945년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대부속병원) 경영
 1957년~1960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서울시연합회장
 1975년~현재 학교법인 휘경학원 이사장
 1951년~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보육원 원장

수상경력

1962년 8월 공익포장 수상(대통령)
 1971년 3월 교육공로 표창장 수상(문교부장관)
 1984년 12월 제28회 소파상 수상
 1988년 2월 제3회 인간상록수 추대

저서

1992년 10월 "천성을 받들어 90년"

공적사항

1. 1938년 탁아소운영을 시발로 사회사업활동 시작
2. 1951년 한국보육원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를 보호·양육함.
3. 1966년 직업훈련학교를 설립, 원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4. 1968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가난한 송추주민들에게 사유지를 기증
5. 1970년 휘경여중·고를 설립하여 여성인력 배출을 위해 노력
6. 70여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전쟁고아 및 환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평생동안 사재를 털어 헌신 봉사함(자산 모두를 보육원과 학교에 기증)

제10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성명 : 박경리(朴景利)
 생년월일 : 1926. 10. 28(만 68세)
 주소 : 원주시 단구동 742-9
 직업 : 소설가

학력 및 경력

1945년 경남진주여고 졸업
 1946년 황해도 연안여고 교사
 1989년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1992년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국문학과 강사

수상경력

1957년 제3회 현대문학 신인상 수상
 1959년 제3회 來成 문학상 수상
 1965년 제7회 한국여류문학상 수상
 1972년 제7회 月灘 문학상 수상

공적사항

1. 1955년 문단 등단 이후 현재까지 40년간 100여편의 장·단편소설, 수필, 시집을 발표한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2. 대표작 "토지"를 통해 민족 수난기의 깨어 있는 여성상을 부각 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 줌.
3.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국토살리기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타의 귀감이 됨.
4. 민족문화사에 길이 남을 방대한 양의 탁월한 대작을 발표함으로써 성을 초월한 업적으로 여성의 위상을 높임.



백영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개혁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정치개혁법의 통과로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이제는 법을 준수하여 과거의 관행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은 결국 국가와 정치를 선진화시키며 그 혜택은 국민,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여성들이 가정의 살림꾼으로서만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포함한 생활정치적 주역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면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1. 서론

냉전종식과 더불어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등 일련의 흐름으로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나라는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향적인 방향에서 사회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대비한 사회전체의 총체적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경쟁력의 차원을 넘는 정치 및 사회문화 전체의 총체적 능력배양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정치개혁도 21세기의 격변하는 세계사속에서 우리 민족이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와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의 전략이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넉넉하고 정의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면 우선 부정선거, 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며, 올봄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로

정치개혁법과 통합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통합선거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겨냥한 야심적인 정치개혁방안이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지난 8월 2일 대구 수성 갑 등 세곳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선거문화가 내년 6월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명선거를 통하여 다원적, 경쟁적 정치구조를 제도화하고, 소외세력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의 정치적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여성 엘리트의 실리추구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성독점의 정치를 지양하는 것이 곧 정치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정치개혁법 통과로 공명선거 정착에 대해 여성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높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사회참여여건이 성숙된 시점에서의 선거제도의 개선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정치개혁법이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과거의 불법금권타락선거로 인해 부진했던 여성의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불법금권타락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훌륭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바르고 깨끗하게 치루어져야 할 축제여야 한다. 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금품과 향응,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분위기 속에서는 진정으로 훌륭한 주권자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전반에 법 경시풍조를 가져오고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행한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수없이 치루어 온 우리의 선거는 부정, 부패, 타락, 폭력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국회의원선거법」만 보아도 1948. 3. 17 미군정 법령 제 175호로 최초 제정된 이래 20회에 걸쳐 개정과 제정을 반복하였지만 선거법이 개정이 항상 선거에 압박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지 못하였고 당리당략에 의해 법개정이 좌우됨으로써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였다.

또한 선거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과열과 타락, 금권지배, 불법과 위법의 횡행, 그리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무법자적인 사고가 팽배하여 선거망국론이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정치권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막강하며, 선거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여러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향해 뛰게 되어 타락선거를 일삼게 되었다.

수십억을 쓴 사람이 당선되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자금을 거두어 들이는 금권선거는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폭력과 흑색선전 등 혼란한 선거 분위기 때문에 저질의 후보들이 다수 출마하는 반면 양질의 잠재적인 후보들은 자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치현실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 정치에서 소외되고, 정치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들도 정치참여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세계 1백18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여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도 높으나 우리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깨끗하지 못한 정치풍토 때문에 정치참여의욕은 높아지지 않아 71%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희망하면서도 정치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은 0.6%에 불과하다.

불법금권타락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려는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우리의 정치권은 정치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관련된 사회정책이나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 중 47.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성임금의 56%인 월평균 63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1993년 통계).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남녀차별관행으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이 싫었던 적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여학생중 82%가 여자라서 싫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23.4%만이 남자라서 싫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남녀간 性比의 불균형이 날로 높아져

2000년에는 처녀 100에 총각 120명이 될 전망이다.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임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정치개혁법 통과로 공명선거 정착에 대해 여성계가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뿐더러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정치풍토조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겠다.

3. 공명선거가 정착되면 여성의 정치참여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가. 여성정치인의 측면에서

1) 정치 입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어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비용 축소,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절차의 규제강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범위확대, '사랑방 좌담회' 등의 명칭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당원단합대회 개최 제한강화, 유급선거 사무원수의 대폭 축소, 기부행위제한 강화, 사전선거운동 규제 등 돈안쓰는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처리수상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선거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몇번의 낙선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마하여 끝내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5천7백만원, 시·군·구의원선거에 1천1백만원이 든다면 여성계에서 여성후보를 발굴해 여성들만의 힘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2) 불법선거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치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던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선거권·피선

거권 제한 강화, 당선무효 및 '연좌제' 범위 확대, 공무담임권 대폭 제한, 형사처벌 강화, 금권선거사범 미수범 처벌, 재정신청제도 도입, 자수자 처벌 면제, 선거사범재판기간 단축, 공소시효연장 등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타락선거 풍토 때문에 뜻있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를 주저하였고 주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웠으나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마련되리라 본다. 이번 '8·2 보궐선거'에서 보면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단지 일부에서 흑색선전이 문제될 뿐이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했던 걸스카우트단원이나 주부, 대학생들이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선거에 대해 매우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을 볼 때 공명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면 여성들의 정치기피증이 줄어들어 정치참여를 쉽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므로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설득하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능력있는 여성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된 장소방문,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및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 후보 등 방송연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 등 방송연설, 경력방송,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지위에 올라 있는 여성일지라도 「일」로서 평가받는 동등한 인격체이기 보다는 '여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사회, 특히 유권자들의 보편적 현실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인정하면서도 여성후보에게 표를 주지않는 것은 여성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기관의 토론회를 통하여 여성후보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책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부각시켜 여성후

보의 실력과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남성은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성만큼 심각하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타 사회문제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정치인들도 여성문제에 마주치면 기본시각부터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4) 정당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늘어나고 지자제 실시와 동시선거제도의 도입 등으로 돈있는 후보보다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후보에 대한 필요성이 정당차원에서 증대될 것이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후원회비나 당비에 의지하여야 하며, 깨끗한 돈으로 돈이 적게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한 당원 특히 여성당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당으로서도 여성들이 당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주화 투쟁의 시기가 지나고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산업사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정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정당인은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세력은 여성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선거의 실시로 정당을 통한 연합캠페인이 선거운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현실정치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정당의 연합지원으로 선거전을 효율적으로 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후보들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여성공천 할당제 도입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생활정치의 중요함이 많이 강조되어 여성이 적합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도 직장에서 마주치는 고용과 승진, 임금의 문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교육문제, 탁아문제, 물가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각종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성들도 정치에 주역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정치 개혁의 길을 여는 대안정치의 실현이다.

5)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신고제 등 사회일반의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여성의 정치입문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의 개혁 분위기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여성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인식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독점의 정치구조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정치구조를 상징한다. 따라서 정치발전과 개혁의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여성을 후보자로서 또 정치활동가로서 남성과 대등한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일은 결국 정치 개혁이 불가피한 과제임을 주지하여야 가능하다.

과거의 정치가 금권, 관권이 난무하는 타락, 불법의 정치였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좋은 정책개발과 개발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실성에 의해서 판단받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정치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며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인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여성유권자로서의 참여측면에서

1) 유급선거운동원수의 제한으로 선거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치루어지게 되어 여성유권자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 선거가 관권개입이나 조직책, 선거브로커에 의해서 치루어져 여성선거운동원들은 일당을 받고 일해주는 일일고용인의 수준이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부진하였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안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수의 선거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여성에 의해서 치루어지게 되었다. 자원봉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연 외국과 같은

자원봉사자제가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8·2 보궐선거' 이후 각 정당이 가장 문제삼은 대목도 자원봉사자의 운용이었다. 우리나라 선거풍토상 댓가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로는 밀도있는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단 선거혁명을 하려면 외국의 정착된 선거자원봉사자제도를 빨리 뿌리 내리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8·2 보궐선거'에서 자원봉사를 한 주부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는 선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선거란 무엇인가를 알 것 같고 특정후보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거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선거실시로 시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 여성 유권자의 정치활동이 다양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개인의 생활 가까운 곳을 만져주지 못하며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일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이 엄마로서, 주부로서 가정과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를 바라보고 나아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특히 지자체 실시로 여성들이 지구당 후원회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직업별 또는 지역단위로 의정지원단, 의정감시단 등을 구성하여 의원의 정치활동을 협조하고 감시하는 일 등 자신의 잠재능력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여성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정치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지역과 집단에 실질적 기반을 갖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돈은 묵고 입은 여는 선거규정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비민주적 정권에서 대중의 정치참여를 어떻게든 봉쇄하고 단지 정치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생적 대중정치조직이 만들어질 수 없었으며 더우기 여성의 경우 정치는 남성들만의 영역이라는 오랫동안의 고정관념과 남성우위의 가부장적문화의 영향때문에 정치에 멧뚥한 주권자로 교육받고 참여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과 접촉하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시대가 이번 정치개혁법 통과로 열리게 된다면, 여성유권자들이 정치현장에서 후보들을 직접 만나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산 교육을 받게 되면 정치를 기피했던 여성들에게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주의를 채택하여 이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혀주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특히 여성들은 충분한 정보없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적격의 대표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선거현장에서 다양한 후보를 만나고 정치현장을 체험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치의식 또한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본다.

4. 정치개혁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정치개혁법의 통과로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이제는 법을 준수하여 과거의 관행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은 결국 국가와 정치를 선진화시키며 그 혜택은 국민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여성들이 가정의 살림꾼으로서만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포함한 생활정치의 주역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면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가. 사회각계에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의식이 제도화된 규범체계를 뒤따르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의식을 바로잡는 문제는 모든 개혁에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는 생활양식 내지 문화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앞장을 서거나 공권력이 뒤에서 작용하여 성공한 의식개혁의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식개혁운동은 가능한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차원에서, 또는 다양한 사회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 정치권은 여성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의식이나 지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또는 이 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선거 전술에 여성 유권자를 동원하였다. 이제 여성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들은 계층과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성 위주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는 오늘의 정치에서 생활을 전담하는 여성을 정치무대에 설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1) 공명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진욱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선거시 여성은 남



성에 비해 물품수수나 음식접대를 더 많이 받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선거시 음식접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물품수수는 나이가 젊을수록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품수수나 음식접대를 받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명선거정착 노력에 이들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연·혈연·학연·지역이기주의적인 투표형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8·2보궐선거'에서 금권타락선거는 거의 사라졌으나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전근대적 투표양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지역감정 뿐 아니라 씨족간, 부락간, 동창간의 분열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3) 투표참여를 위한 여성운동을 벌여야 한다.

연령이 젊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적 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매우 낮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성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주시 보궐선거에 참여한 걸

스카우트대원들처럼 일찍부터 공명선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초·중·고교 교육을 통해 '생활속의 선거'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여성선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선거자원 봉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대상은 여성들중 나이가 젊고 중산층, 고학력,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정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하겠다.

5) 소모적인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권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김영래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치비용을 쓰고 있다. 일본에 비해 5배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25배이상이나 된다. 지역주민의 경조사나 지역단체행사에 화환, 경조금, 찬조금, 기념품제공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소모적인 정치비용을 쓰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지구당 관리는 선거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유권자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나. 정치개혁을 위해 참신한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1) '내보내고 싶은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이 당선되어 깨끗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깨끗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질적향상과 정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실용주의적 정책대안의 개발의 필요성은 온건 개혁 세력과 적극적 개혁 세력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에 적합한 여성후보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2) 여성후보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중심의 투표행태가 예상된다. 지방선거결과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어 무소속후보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민자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자당은 이를 여성공천에 반영해야 한다.

20대, 중산층, 고졸출신, 중소도시거주자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현실적인 정치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야당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성후보공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여성후보당선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들은 정치의식,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정치성향에서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여성이기에 무조건 여성후보를 지지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여성 정치의식의 상향적 평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선거구 선택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우호적인 그룹은 20, 30대, 고등학교출신, 중소도시 거주자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미혼여성들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우호적인 여성은 50대이상, 국졸이하, 군단위거주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가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차이가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선거구 선택에 이러한 유권자의 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2명이상 뽑는 선거구에서 여성당선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여성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 선거구에 여성후보는 한사람만 후보로 내세워 출마한 여성후보는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나) 정책개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정통적인 정치사회화의 결과로 정치를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사회적 불의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일차적 관심사는 가정과 자녀교육이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젊은층은 개혁성향이 강하며 2000년에는 남녀비가 여자를 100으로 할 때 남성이 120이 될 전망이다. 남녀차별관행의 시정, 여성의 고용기회 확충 등 여러가지 사회정책개발로 여성유권자를 결집시켜야 하겠다.

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단체간 협력, 종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95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하나로 뭉치는 고무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여성단체들이 환경, 여성, 인권, 소비자문제 및 지자체 등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밀착된 과제들을 생점화, 공론화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함께 일하고 또 의회밖에서 여성단체들이 힘있는 정치세력으로 커져야 여성문제를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사안과 쟁점에 따라 독립적인 단체들이 함께 협조하고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 처럼 영향력있는 남성들과 연대하여 여성계의 능력을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결집시켜야 하겠다.

라. 여성들도 정당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여성단체들도 정당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정당과 Network를 형성하고 여성정책을 제시하여 정당의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여성문제를 공식적인 정치마당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마. 여성단체들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풍부하게 하고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예이다.

후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수 일반유권자들은 관권, 금권, 선동적 분위기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최근에 우스룩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무시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후보들의 토론장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겠다.

미국의 여성유권자 연맹에서는 대통령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행사를 하고 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이 토론은 유권자가 안방에서 후보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질의에 참가한 여성들의 높은 정치수준은 유권자들에게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바.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여성정치연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여성정치인 양성은 여성들이 대부분 조직 생활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도록 길들이는 사회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취약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여성정치연수원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될 때마다 정치적 능력을 갖춘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는 과거 정치권이 여성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지도자교육에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전국구 여성의원의 경우 교육계, 여성단체, 전문직, 정당 등에서 활동한 사

람들을 정당에서 공천을 준 경우가 많아 여성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타율에 의하여 성장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고, 숫자도 극히 제한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후보도 능력이 있다면 지지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투표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여성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책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집권당은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력과 금권을 배경으로 국민을 동원하고 야당은 일반국민이 하기 어려운 민주화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일반 여성의 정당참여는 어려웠다.

그러나 문민시대의 여야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정당의 개혁은 자율성, 아울러 생산성, 사회통합성 및 도덕성 확보에 달려 있다. 무원칙적인 인력충원방식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충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하여야 하겠다. 또한 당내 민주화를 정착시켜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당원의 56%가 여성이고 민주당은 54%인데 전당대회 여성대의원은 각각 8%, 14%이다. 여성정치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상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당내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관행처럼 총재 등 중앙당부가 전국구 후보로 여성을 몇 사람 지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성대표가 되고 혹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총재의 대표 혹은 중앙당부의 대표일 뿐이다. 국민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정치인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당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돈이 없어 출마를 망설였던 참신한 개혁

지향인사들이 새 선거법에 의해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것도 각당의 공천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깨끗한 선거의 시작은 공천과정의 투명성부터이다. 따라서 정당이 참신한 여성들에게 공천을 얼마나 어떤 지역에 주는지 여성계는 주시해야 한다.

아. 강력한 법집행의지와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선거법은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부패 및 위법방지법」이 오래 타락선거에서 그렇게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자체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정하고 연좌제를 채택하여 처벌을 강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법안을 성립시킨 법무부장관 해리제임스의 강력한 의지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8·2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강력한 준법의지를 보여주었기에 공명선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해야겠다는 정치인과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완벽하여도 선거권자와 후보자 즉, 국



민이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선거자금 지출제한과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자칫 잘못하면 현역의원들이 정치자금을 그만둘 더 확보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아 평상시 지역주민들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대표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과수꾼이 되어서 정치인들이 성실하게 활동하는지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특히 그들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치의 부패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개인의 탐욕에서 저질러지는 개인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으며 정경유착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중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조직화되어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거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중 국민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는 정치권만의 집안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감을 의미한다.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듯 정치자금의 편성과 집행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의 내용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실명제가 실시되어 검은 돈을 차단하고 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도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투명한 정치자금에 의한 깨끗한 정치제도는 정착될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풍토의 조성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참여의 한 양태이며,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부담이 아니라 유권자가 부담하는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후원회 제도의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를 생활화하여 유권자가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백명이 일년동안 하루 백원씩 정치인돕기 모금을 하면 기초의원 1인의 선거비용이 마련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정치인들을 후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여성계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차. 지방차원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구체적인 삶과 밀착된 각종 행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므로 주민들은 행정참여와 감시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지방정치 및 행정과정에 유효하게 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예방, 감시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개혁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있어야 한다. 언론기관도 공명선거 캠페인에 인식해서는 아니된다.

〈발제강연〉



주준희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정치학박사)

바람직한 후보자의 요건

반사회, 새마을부녀회, 자모회,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도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자원봉사 등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와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앞장선 경험이 있는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높고 지역사회단체의 관계가 원만한 지도자가 바람직하다.

1. 서론

민주화는 세계적인 물결이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화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문명정부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전세계적으로도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전통적 유교의 남성중심문화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정치를 남성적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는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가 있기에 정치엘리트의 권력의 남용이 제한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명선거야말로 민주화의 성공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개혁법이 마련한 공명선거의 기반 위에서 1995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민주화와 여성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만하다. 온 여성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최소한 20% 이상의 여성을 진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여

성후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직 지방자치를 비롯한 정치전반이 여성에게는 새로운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선뜻 후보로 나설 여성은 소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후보자를 발굴해서 출마를 권유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자원봉사, 데스크의 활용, 좌담회 개최 등으로 선거유세를 지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인지, 바람직한 후보자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바람직한 후보자의 요건

먼저 바람직하지 못한 후보자의 요건을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았는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는지 간에 벼락부자가 되어서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예를 갖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이 지역주민의 필요를 진정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후보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 주민의 필요를 알고 지역사회 문제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지방자치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이 바람직하게 배분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에의 애착심이 있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느끼고 체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절실성을 체감하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명사이기 때문에 추천된다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부담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적 자질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그러한 경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즉 반사회, 새마을부녀회, 자모회,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도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자원봉사 등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와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앞장선 경험이 있는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높고 지역사회단체의 관계가 원만한 지도자가 바람직하다.

(2) 지도자로서의 자질, 즉 리더십이 있는 사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리 혼자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기를 따라 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우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선거공약을 통해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불평만으로는 안된다.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가지고 전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사명감,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인격적

감화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반대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적극성과 돌파력 역시 필요하다. 필요할 때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성숙함도 필요하다.

(3) 여성의식, 여성문제에의 관심과 지식

지방의회에 여성이 20% 이상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여성으로서 여성을 대변하리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라 해서 반드시 여성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과 거의 다른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 여성들을 경시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꽃과 같은 장식적 존재가 되는 데 만족하는 여성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은 여성의 대표자로서, 여성의 문제를 체감하고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의식하며,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지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남성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성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여성 특유의 통찰력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문성

현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이다. 의지와 열성 못지 않게 경험에 의해 쌓아 올려진 실질적인 능력, 전문성이 중요하다. 학력은 지적능력의 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건강한 지성이다. 가정주부는 소비, 자녀교육, 환경, 노인복지, 환경개선과 삶의 질의 개선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 올리는 현대의 전문직이다. 한편 의사, 변호사, 교사, 약사, 회사원, 건축가 등 다양한 전문직을 통해 쌓아 올린 대인관계기술과 지성 역시 중요하다.

(5) 성숙한 인격과 도덕성

물론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

더라도 주민을 위해 일을 추진하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인군자이면서 추진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바람직한 후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정직, 성실과 도덕성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도자로서 가능하다면 모범적인 가정과 인격의 소유자임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재산형성과정이나 결혼생활과 과거 경력에 의혹의 여지나 치명적인 요건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후보자의 발굴 및 지원

그러나 위의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여성후보가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정치개혁법과 더불어 기초의회에서부터 정당 표방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후보의 발굴은 정당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앞서 각 지역사회의 여성단체는 여성후보추대위원회를 결성하여 바람직한 후보들에게 출마를 권유해야 한다. 또 여성단체는 왜 여성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지를 매스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범여성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후보가 용기를 얻고 출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확실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자원봉사교육 및 활용계획수립, 후보에 대한 선거전 교육 및 훈련, 재정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여성진출의 중요성 홍보, 여성후보를 알리기 위한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 선거전에 있어서 여론 동향의 파악 및 선거전략 제공 등이 있다.

한편 각 여성단체는 각 정당이 최소한 20%의 여성공천할당제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여성후보가 당선가능한 지역에 공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 지역에서 두명 이상의

여성후보가 서로 경선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정무제2장관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소, 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맹, 여성의 지방자치참여를 위한 후원자모임 등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각 단체는 우선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각자가 비슷비슷하고 산발적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지역별, 기능별로 분업을 시도하여 각자의 중점사업을 전문화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가 당리당략과 세력다툼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화합적 집단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구에 적어도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여성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발굴된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하여 당선시까지 책임을 지고 밀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우리는 그동안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문민정부로의 평화적 정권이양을 이루어 왔으며 이제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선진도덕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될 것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여성의 능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투입할 때이다. 1995년의 지방자치 선거는 한국의 민주화를 도약적으로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여성이 대거 진출하여 10%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말만 할 때는 지나갔다. 여성단체는 힘을 합하여 이 한 목표를 향해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강경화
(세종대 교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의식개혁

우리는 내년도 선거를 기회로 선관위의 자원봉사자로서 홍보·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가 그의 또는 그녀의 소신과 정책 비전으로서 선택한 후보자들을 위해 깨끗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공명선거 정착에 일차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바야흐로 중차대한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삼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우려는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국정 의제로 표방하고, 그 가장 큰 결실로서 여·야 정치권을 재촉해서 과감한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첫 시험대였던 8월의 3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금권과 관권선거를 퇴치하려는 새 통합선거법의 정신에 걸맞는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당국의 새로운 선거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공명선거가 이 나라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가능성이 과연 우리의 선거문화로 정착할지의 여부는 내년 6월말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기초 및 광역 단체장과 의회선거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지난 8월의 보궐선거는 집중된 감시하에서 실시된 극히 제한된 범위의 것이었기 때문에 전례없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6월 전국이 각 선거구마다 수십명의 후보자가 예상되는 4대 지방선거의 열풍에 휩싸이게 될 때 과연 법대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을지, 이는 우리의 민주정치발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며,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가 공히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야 할 국가적 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여성들의 지혜를 모으고 여성유권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오늘 대회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몇년간 선거 때마다 실시한 유권자의식에 대한 일련의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의 불법 타락선거의 주된 양상이 돈의 난무에 있었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의식은 새 선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었던 것으로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거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후보자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4.5%였으며, 이는 금권선거가 전체 유권자와는 무관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2.4%, 주는 후보자를 찍었다는 사람이 불과 4.9%, 그리고 오히려 불쾌해서 다른 후보자를 찍었다는 응답자가 7.1%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1991년 기

초의회의와 광역의회 선거 그리고 1993년 4·23, 6·11, 8·12 국회의원 보궐선거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또한 투표결정요인에 대해 응답자중 31.4%가 후보자 인물, 29.0%가 정당, 그리고 25.6%가 공약이나 정견을 들었고, 인물을 보고 투표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43.7%가 정적 신뢰성, 36.7%가 정치적 경륜, 그리고 불과 4%만이 후보자의 재력을 들었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볼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미 상당히 합리적인 선거의식을 갖고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표행위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이 갖는 응답자의 객관성·성실성 결여문제—즉, 자신의 행위나 태도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보다는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거나 사회통념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는 답을 고르려는 경향—가 특히 크게 작용할 것임을 감안할 때, 금품 향응을 받지않았다는 84.5%의 답과 받았더라도 투표에는 무효였다는 82.4%의 답은 역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명선거 방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불법 타락상을 가장 크게 꼽았지만(46.9%), 그 다음으로는 유권자의 금품, 향응 요구 수락 행위를 들었다(15.3%). 이는 앞서의 금품 향응 수락여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답변과 종합해 볼 때, 요컨대 '나는 깨끗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꽤 있음'은 후보자측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깨끗함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1991년 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13대 국회의원들의 93.6%, 정당간부들의 93.8%, 그리고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지식층의 97.9%가 금권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이후에도 돈의

위력에 대한 정치인과 후보지방자들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참모 또는 운동원으로 뛰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1992년 선거 당시 막판에 돈봉투를 돌린 것이 결정적이었고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사석에서는 털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새 통합선거법하에서 8월 보궐선거가 '돈 없이' 치러진 뒤에도 이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수차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고 본인들도 언젠가는 출사표를 던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 지방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아졌다. 「돈으로 하는 선거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돈 없이는 유권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8월 보선은 국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다. 전국적인 선거상황에서 새 선거법이 엄격히 준수될지 의문이다. 돈이 철저히 차단되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대한 선심이 아닌 소신으로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되기 바란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또는 후보지방생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멀었지만 이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많은 물질적 배려를 하고 있다. 서울에 오면 차비를 줘야되고 국회에 구경이라도 오면 직접 나가서 안내하고 식사대접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홀대했다고 섭섭해한다.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는 부담이다. 의정 일은 뒤에 제껴놓고서라도 지역구민 모임에는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한다. 이제 법과 이를 집행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엄하니, 후보자의 고민은 어떻게하면 법망을 피해 돈을 쓰느냐이고, 유권자, 적어도 일부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떻게하면 법을 피해 후보자로부터 혜택을 받느냐이다.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돈과 돈이 가능케해주는 매수의 일차적 대상은 주로 여자들이다. 대부분 직장에 나가는 남자들보다 시간여유가 많아 동원하기 쉽고, 또 작은 돈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몇만원짜리 돈 봉투가 돈을 버는 남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몇천원이 아쉬운 주부들에게는 큰 액수일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받으면 보답해야한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선거란 치는 여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새 선거법에 따라 소신과 열성만으로도 성공적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지만 여자들의 선거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선거풍토는 발전할 수 없다.」요컨대 금권이 아직 통하고 이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통해서 효능이 있다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후보지방생들의 인식은 앞서 기술한 수치상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체와 괴리된 것이며, 과거 불법 타락선거의 일차적 원인도 이와 같은 후보자측의 왜곡된 의식에 있었으며 따라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의식이 변해야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유권자 응답자들의 자기보고에는 객관성 결여의 문제가 큰 만큼, 유권자와 후보자의 인식의 괴리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만큼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후보자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끔 해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철저히 단속되었던 지난 8월 보선 때, 14대 총선대비 평균 20% 이상의 투표율 저하현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얻는 것이 없어서 흥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지닌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 의식개혁 노력의 일차적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유권자들을 따로 추려내어 의식전환을 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인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상치되는 발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범시민적 개혁운동에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이 전개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 '깨끗함'을 자처하는 유권자들이 나서야한다. 자신의 점잖음, 나아가서는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기력감에 안주하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되찾아야한다. 과거에 법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경시되어 금권과 관권이 성행했던, 그래서 선거가 민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과정으로서의 고귀한 의미를 상실했던 상황에서는 선거불참 내지는 거부행위가 어느정도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공명선거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이 마련되고 돈과 선거의 고리를 끊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된 지금, 더 이상 법과 제도를 탓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주권행사에 대한 효능감(efficacy)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나의 깨끗한 한표의 의미가 과거에 있어서처럼 혼탁한 선거과정에서 희석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사후 법집행을, 후보자에게는 나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언론에게는 공정한 보도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그리고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책임감있는 주권행사에의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 여성 유권자들은 과거 소모적인 시골 잔치와 같은 혼탁한 선거분위기 조성의 주된 대상이었음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새 선거법이 제공하는 공명의 틀을 적극 이용하여 더 이상 선심공세의 수동적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능동적인 공명선거의 주체로 변신해야 하며, 그 변신을 후보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화된 여성의 힘이,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적극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공명선거에 가장 큰 해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불법 타락상이었다는 것이 옳은 지적이지만, 따라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변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은 무의미하다. 유권자가 확실히 변하기 전에는, 여성유권자가 변했음을 그들이 확실히 인식하기 전에는, 이기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선거라는 제로-섬 게임에 인생을 거는 후보자측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는 바로 우리 여성유권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후보자들과 정치권에 주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선거로 15명의 시도지사, 260명의 시장 군수와 구청장, 866명의 광역의원, 그리고 4,304명의 기초의원, 총 5,445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탄생할 것이다. 지난 91년의 기초의회(24 대 1)와 광역의회(33 대 1)의 후보경쟁율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약 13,860명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수는 지방까지 포함하여 1,872명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선거에서는 직원 1명이 7.4명의 후보를 담당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공무원, 경찰이 불법운동 단속에 동원된다 해도, 후보당 수십 수백명씩에 이르는 운동원을 단속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최소한 4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월 보선 때 선관위 소속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감시활동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유급 운동원수를 대폭 줄인 새 선거법하에서는 각 후보진영도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그 규모가 다양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아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당 평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약 140,000명이 전국적으로 동원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선관위의 수요와 합하면 모두 180,000명이 된다. 이는 최소한의 추정치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를 누가 충당할 것인가? 우리 여성들 밖에 없다. 남성들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 대해 이미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당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여성유권자들이 공명선거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도 선거를 기회로 선관위의 자원봉사자로서 홍보·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가 그의 또는 그녀의 소신과 정책 비전으로서 선택한 후보자들을 위해 깨끗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단계 성숙해진 여성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명선거 정착에 일차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은 이 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달려있다. 말 그대로 공명선거 정착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



김선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

여성단체가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능력을 키워야 하며 각 단체는 구성원의 성격에 적합한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타 여성단체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단체는 여성의 힘을 단합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I. 머리말 - 공명선거 실현과 여성의 정치 참여증진의 의미

깨끗한 정치풍토가 조성되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선거란 오늘날의 간접민주정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이때 선거권을 갖는 모든 국민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평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때만이 1인 1표의 동일한 가치가 있다.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광범위한 경제적 활동과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분야에서만은 이렇게 미약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공명선거가 아닌 부정, 부패, 금권선거에서는 1인 1표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반의 의미가 인식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면 각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반인 여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힘이 조직적으로 형성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되어 여성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의 정치문화는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공정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리더십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며 의사결정 스타일도 대립적 해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덜 형식적이며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친밀하고 변화에 대해 열려 있으며 정의와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은 여성의 삶의 체험과 경험에서 유래하는데 가정, 가족, 일상생활에서의 주위에 대한 보호와 관심, 전통적 봉사활동의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남성이 폭대기에 위치하고자 하는 리더의 특성을 갖는다면 여성은 가운데에 위치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리더십의 특성은 여성이 미래사회에서 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미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30~40%에 이른 스칸디나비아의 실증적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명선거의 실현과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발전을 의미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여성이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다.

II. 여성의 민주시민의식과 실천력의 형성

공명선거의 실현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모두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바탕한 민주국가로서 이들 가치가 정치적으로 확립되게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시민의식과 이러한 민주정신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신념을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하여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 그 뜻을 확인하고 그 실천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소집단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만남의 장을 여성단체가 제공해야 한다.

앞에서 다룬 유권자로서의 바른 의식과 바른 후보를 판단하는 판단력 그리고 그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단체 스스로의 조직과 운영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원선출의 선거방법에서부터, 회의의 진행방법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III. 정책결정영향자로서의 압력단체 역할

다원화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이익집단들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이 커지며 그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들 단체는 권력에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직접적 규제자의 역할보다는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산출자로서의 기능이 커진다.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영향력은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사회환경적 요인이 충분하지 못했다. 종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비호아래 정부의 정책을 선전, 교육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기도 했으며 정부와 상호 협조적 관계에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이익집단은 공공정책의 영향자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산물이 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자발적 단체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커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에 관한 자율적 사회압력단체로서 정책형성의 주체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단체가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능력을 키워야 하며 각 단체는 구성원의 성격에 적합한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타 여성단체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단체는 여성의 힘을 단합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정책과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물론 각 단체는 다양한 목적과 토대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의 목표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수 있다. 평등정책의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여성의 의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갖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하여 여성단체가 합심하여 많은 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적 활동, 정당에 대한 압력을 통한 다양한 여성정책의 유도 및 여성후보자의 지지, 그리고 여성당계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 도입에 대한 정책적 압력 및 여성의 정치교육기능을 맡아야 한다. 전통적인 여성운동단체에서부터 신여성운동단체까지의 다양한 여성단체들간의 협력에 관한 성공적인 예는 특히 북구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정당의

공천할당제 등의 제도적 지원과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성정치연수원의 설립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역할로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여성정치연수원의 설립은 현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당내 여성정치 지도자육성을 위한 기구 마련'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하여는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에 관한 한 각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연대하는 조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진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자 했던 정치적 소극성을 탈피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IV. 지역사회운동의 활성화

중앙조직중심의 여성단체활동에서 지역의 실제 생활에 터전을 둔 지역사회의 여성단체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립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활동, 지방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조직적으로 함으로써 참여와 감독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공해, 주택, 교통, 교육, 복지 등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지역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의 환경운동, 문화운동을 생활속에서 전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 발전하면서 생활속의 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들의 참여의 기회는 더욱 증진되고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조직적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여성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협력이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게 된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단위의 소집단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V.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의 활용과 정착

한국의 자원활동은 20세기 초 기독교의 영향아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자선적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민간 사회사업기관들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활동자를 활용해 왔다. 1991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이상 국민 중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4%였는데, 이는 미국(54%), 영국(51%), 프랑스(19%), 일본(20%)에 비할 때 무척 적은 수이다.

우리나라의 자원활동은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고 참여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원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자원활동자 중에 여성의 역할은 비교적 크다.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자원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사회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면서 해결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을 실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며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경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특히 이번 정치개혁법에서 새로 도입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여성후보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하고 또한 정치현장의 경험의 기회로 삼아 여성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는 많은 여성들이 내년선

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또는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참고: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에서 '선거운동여성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곧 발간할 예정임.)

VI. 맺음말—여성단체의 역할변화를 위한 과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의미하는 공명선거 실현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가지 역할이 있지만 특히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과 실천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선거운동자원봉사자제도의 활용과 정착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성단체 스스로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단체운영의 민주화, 여성단체의 조직력의 강화, 연대력의 강화, 전문화, 지역단체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정치적 소극성의 탈피 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정치는 비진실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사회형성의 제도적 전제로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기능을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로서, 공명선거의 감시자로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서, 여성정치인의 지원자로서 그리고 후보자로서, 당선자로서.

제31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로 개최된 제31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우리 여성 일동은 1995년이 깨끗한 선거풍토 달성과 한국 여성 정치참여확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가중시키는 불법·금권·타락선거 예방에 앞장서고, 깨끗한 주권행사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유, 정의, 평등 정신에 기초하여 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문제를 공공정책의 우선과제로 인식하도록 단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 50%를 목표로 하되, 우선 1995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선거혁명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자원봉사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하고 정치자금기부를 생활화하여 깨끗한 정치환경조성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여성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정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과 기본인성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식개혁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재일대한민국부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참정권획득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며, 해외거주동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1994. 10. 14.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제31회 전국여성대회 건의문

제31회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우리 여성 일동은 내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 이 사회를 남녀평등과 인간성이 존중되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국민의 대표성 확보와 평등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부단체장 임명과 정책 고위직에, 정당은 의원 후보자 공천과 당 고위직에 2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통합선거법이 실효성을 거두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를 전후하여 엄격한 법적용으로 모든 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건의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자원봉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여 불법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통합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앞장서고, 각 언론기관과 사회단체도 이에 능동적으로 동참해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법을 솔선수범하여 실시하게 하고 정부계약업체 선정에 있어 해당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를 자격요건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끼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여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할 것과 마약, AIDS, 성폭력, 흉악범죄 등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각종 해악적 요소를 퇴치하는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 대중매체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및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1994. 10. 14.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만나고 싶었습니다 : 전재희 광명시장〉

다음은 전국여성대회 행사중 본회 이연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녹음 풀이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잠재력을 지닌 것이 한국여성입니다.”

사회: 먼저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성계가 관심을 갖는 인사를 초청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국여성대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전재희 광명시장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인사로서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분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시장으로서 광명시장이 되신 소감과 광명시민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전시장: 저는 광명시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여성시장이라는 관심이

란 격려와 기대때문에 처음 부임해서 며칠동안은 잠도 안오고 밥 맛도 없었지만, 그 큰 기대와 열망에 제 작은 몸이라도 다 던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부추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더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명의 시민들은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광명시의 시장은 자주 바뀌었고, 더군다나 미지수인 여성시장이 부임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적인 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속에 시장이 부임할 수 있었던 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제는 시민들이 '아, 맡겨볼 만 하구나!' 하는 작은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더 좋았다고 봅니다.

사회: 시장업무수행을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시장: 과연, 시장은 어떤자리인가,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있어,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35만 시민의 생활편익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청 1,300여명 직원들이 일하는 마을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위치는 대단히 책임감이 큰 자리라는 것이 저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일을 하는데 있어, 자기일이 정말로 소중한다는 가치를 느끼고, 가치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십년 앞은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멀리보는 안목으로 '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큰 해를 끌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민들의 동참속에서 이끄는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국가 제도나 법에 맞춰 나아가려면 상당한 행정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공부하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시장은 전문적 역량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시청의 99%는 시민들이 하고 99%의 시민이 할 수 없는 공공분야 1%를 시청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볼 때, 시민이 하고자 하는 일과 시청이 하는 일이 합을 이뤄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대화를 통해 합을 이룰 수 있고 합을 이룬 것을 정책화하고 또 그것을 시민과 더불어 끌어 갈 수 있는 민주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개인적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자녀는 몇이며 하루 시간표는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시장: 나이는 마흔여섯이고, 가족은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학년인 아들과 고등학교 일학년인 딸하고는 요즘 이산가족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후 제가 없는 집안의

여러가지 일들을 정리한 후, 다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저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집안 일, 시청 일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밤 11시30분쯤 됩니다. 전 이 시간, 학교에서 돌아왔을 애들에게 전화해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잠이 듭니다. 아침 일정은 해 뜨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광명에 왔을 때 봄에서 여름사이였습니다.

아침 5시20분쯤 일어나 정리하고 6시면 집을 나섭니다. 출근전, 밤새 '광명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6시부터 7시30분까지 광명시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사실 시장의 으뜸가는 기쁨은 시민과 만나서 대화하고 시민과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일정에 밀려 시민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부업을 하는 것입니다. 골목에 있는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도 보고 운이 좋으면 학생들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시에 바라고 싶은 사항, 시에 아쉽게 느낀 점들을 들읍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저는 시민들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제겐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새로 정부를 출범하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개혁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임명장을 받고 뭉어 었드려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왔다는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재직하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개혁과 발전의 근원지가 우리 광명시로부터 일어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꿈일 수도 있고, 아주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은 어느 사회지도자 일부가 되거나, 공직자 일부가 되서는 참다운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삼십오만 시민과 더불어 개혁을 해 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부시장의 일입니다. 제가 파출부를 고용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집안 일을 하는 것과 대충대충하였을 때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에게 느끼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우리 청소과장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사겠다고 결재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에 오십몇만원짜리라 총 2억이 넘는 비용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헛 돈 안 쓸 자신이 있는지 다짐을 받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 통이 잘 있나 궁금해서 둘러봤더니,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시민세금 2억은 혈세인데,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 광명시 직원들은 설 땅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저는 쓰레기통에 시민을 반장으로 하고 시청직원을 부반장으로 해서 명찰을 붙였습니다. 제일 지저분하고 힘든 쓰레기통에 광명시장 전체 회라 붙이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나가보는데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40% 정도 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젠, 집계를 들고 어지러운 골목을 청소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집앞 골목을 청소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내 집앞, 내 가게앞 골목을 청소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간부들이 결의대회를 하자고 제안하길래, 자꾸 시민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집 대문앞을 사흘동안 계속 청소하면 한번 쯤 주인을 만나겠죠. 그럼, 주인에게 '이 집 앞을 누가 지날지는 모르겠으나 깨끗이 기분 좋게 지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집앞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는 것이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고, 곧 개혁이요, 발전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돌아보는 것을 끝낸 후 시청에 출근해 근무합니다.

사회: 시장님 입장에서 여성단체들이 해 줬으면 하는 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 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일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시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중앙부서에서 기획·행정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여사는 공직생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가입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장으로 가지 않았으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노고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시장으로 가서 보니까 지구촌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없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였습니다.

경로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뼈뺀 예산으로 싱크대도 없는 곳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을 보고 저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6개월 밖에 안된 시장이지만, 저는 광명시장이니 광명시 자랑을 잠시하겠습니다.

저희시에 하안13단지라고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보아왔고 제가 어려운 사정을 좀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둘러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월급 받았다고 함부로 쓰면 죄받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위를 가꿈으로써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외롭고 힘든 분을 시민의 힘으로 외롭지 않게 해서 '광명에 정이 넘치게 하자' 생각해서 두번째 시작한 일은 '복지자원봉사사업'입니다. 두서너달만에 1,212명의 시민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시민들이 주고 싶었던 감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광명시에 오시면 허리굽은 할머니도 활짝 웃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웃는 것을 보실텐데 그것은 광명시민이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성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나는 사회상이 이렇게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진정 사회를 정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의 힘이 주춧돌처럼 받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보다 특화되고 조직화되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관내의 사회단체만 보아서 그런지 고칠점을 못봐서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 내년 지방자치제도 선거에 여성들이 참가도 해야겠고, 주변사람들을 내세워서 20% 할당제를 현실화할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여성이 지방자치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을 좀 주시고, 전시장도 민선시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시장: 저는 지금까지 투표할 때 한번도 기권한 적이 없고 투표장에 갈 때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한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이 순간까지 제가 선거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문행정공무원으로 출발했고, 제 모든 것을 전문행정공무원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 지 쟁거보았을 테지만 출마생각이 전혀 없어, 그 분야는 여기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여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전시장: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스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가 지나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조시대는 쓰개치마를 써야만 했고 널뛰기를 해야만 담뱃을 구경하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 해방을 맞고, 6·25를 맞아,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가난, 사회경험 없는 상태, 그리고 칠남매, 팔남매를 키워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저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그 상황에서 그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그 하나로

표현되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그리고 준비도 없고 아무런 여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왔고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세계속의 한국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이 그때의 생각으로 그것이 정계이든 행정계이든, 경제계이든 어느분야든 간에 지향점을 두고 힘을 발휘하면 그 분출력은 엄청나서 한민족의 앞날을 크게 밝혀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곰곰히 되새겨보고 또 그 잠재력을 키우는데 힘을 합하면 세계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과 나아가서 여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20여년 공직생활을 하며 변함없이 간직해 온 마음입니다.

사회: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참 지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전재희 (1949년 9월6일생)

'73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73. 3월 제13회 행시합격

'73.12월 문화공보부 방송관리국 근무

'74. 12~노동부(부녀소년과장, 재해보상과장, 임금복지과장, 공공훈련과장, 훈련기획과장 역임) 근무

'91. 미네소타 주립대 수석

'91. 4 부녀지도관

'92. 1 노동보험국장

'92. 12. 22 부녀지도관

'93. 12. 13 직업훈련국장

'94. 4. 19 현재 광명시장

가족관계: 부군과 1남 1녀

여성들이여, 하나가 됩시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자들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초라는 제한된 시간때문에 말이 중간에 끊기는 등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우리 속에 있던 생각들이 진솔하게 반영되어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듯 즐겁고 일체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 발언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윤수경**(이우정의원 보좌관)
: 국회내 여성특위가 생겼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것 같다. 오늘날의 정치를 생활정치라고 하는 만큼 정치가 국민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때 투표하고는 이내 방관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김인규**(국제존타 서울클럽 회장)
: 주제발표 내용 중에 입후보 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분은 유권자가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알아서 걸르고 심사후에 입후보할 자격을 주어야지 국민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손경옥**(국제여성승공연합)
: 역사를 보면 여성은 외출도 교육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만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 속에서 이제 여성의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치참여의 일환으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사업이 보람을 거둬 전국구 20%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성, 모성에 그리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살려 가정·사회·국

가·세계의 평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때이다. 내년 북경대회에선 한국여성의 선진화된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결집하고 분담해서 치밀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주미례**(대구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진국수준에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인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화된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세계여성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질과 능력이 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여성의석 20%를 할당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겠다. 능력있는 후보를 과감히 발굴, 육성하고 여·야를 망라해서 선거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공명선거정지문화를 정착하는데 여성의 힘을 집결해야겠다.

➔ **박명숙**(한국통일여성협의회)
: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선 여성유권자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지역 엘리트인 여성이 타락선거에 개입하는 한 우리여성이 설 땅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여성의 노력으로 국회여성특위가 신설되고, 내년 지자체에 20%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발맞춰 우리는 더 많은 여성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남북통일도 여성의 힘이 모태가 되어 한발 앞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여성들이여, 하나가 됩시다.

➔ **이인숙**(국제존타서울클럽)
: 직장여성인데 오늘은 특별히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왔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살기 좋은 자리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다. 그런데 대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 같다.

내년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의석이 20%가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려면 더 많은 선거자원봉사자가 필요하리라 본다.

여협에 바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조직에 곧 연결해 주길 바라고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간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이 이 일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 **이하선**(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
: 옛부터 남존여비사상이 뿌리 깊어 여성을 암탉에 비유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된다느니 하며 무조건 여성을 경시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선 신사임당, 논개, 류관순과 같은 훌륭한 여성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여자 이니까 안된다는 소극적생각은 떨쳐 버려야겠다.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남·녀의 차별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대만의 경우 여성퀴터제가 실시돼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암탉이 울면 값진 황금알을 낳는것을 보여주지 위해서라도 우리 여성이 앞장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보자.

➔ **최금분**(재일대한민국부인회의 회장)
: 일본에서 20만 회원을 갖고 있는 재일대한민국부인회 회장으로서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결의문 중 저희 참정권 획득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정치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부럽다. 저희는 일본에서 전후 오십년이 되었지만 참정권이 없다. 저희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몇몇이 살려면 참정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의자**(강원도 횡성)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여, 여성을 먼저 사랑하자'이다. 남존

여비사상은 우리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만 감싸는 것은 고쳐야 한다.

▶ **차정희**(부산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 자리에 모여 여성 정치 참여 의욕을 뜨겁게 가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이 살림에 얽매어 장애가 많다.

형편이 좋은 남성과 같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없다. 바둑을 두어도 고수가 몇점 양보하듯이 정치 진출의 과정에서도 20% 할당제 혜택을 주어 힘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출발해야 승산이 있다. 부산에서는 쿠퍼제 서명운동을 몇년 전부터 벌이고 있다.

▶ **백수진**(국제여성승공연합은평지구):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지방자치제의원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글자그대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확실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정착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의 문은 훨씬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키워내고, 모성애와 포용력, 충절의 기풍으로 국가관은 물론 살림살이를 잘하는 우리 여성들이야말로 남성정치인들과 조화로 이루어 각계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한다.

▶ **김선순**(전남 광양 여성단체협의회): 공명선거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고장과 같은 시골에서는 자원봉사자는 있으나 사람들을 설득할 지식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양소**(강원도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여성들이 질 높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고 본다.

어떤 분들은, 정치와 여성이 관련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치야말로 종합예술이라고 느낀다. 어떤 것을 하든, 정치로 승화시켰을 때 종합적으로 승화된 것이다. 우리 각자의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치요, 종합예술이다.

▶ **김장숙**(경기도 광명시 여성단체회원): 전제회 광명시장이 부임하던 날 기자들은 어떤 시장이나 보다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선입견에 나는 항변하였다.

▶ **서수현**(거제군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우리여성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 대회 도중 간사람, 주변에 쓰레기를 널려놓은 사람, 이래선 안된다.

우리가 남자들과 경쟁하려면, 먼저 우리 여성들의 자질부터 갖춰야 한다.

▶ **이복순**(농협 전북부녀지도협의회):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쓸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다. 우리 여성을 대표해 신나게 일해

줄 지도자가 주변에 흔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20%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를 앉히느냐가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자신은 빼고 주변 사람만을 권유하니 사람이 없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여기 계신분 만이라도 나서 줄 용의가 없으신지, 건의한다.

▶ **박애경**(경남 진해): 출마를 하려면,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남을 도우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영희**(충남 부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면단위에 살기 때문에 20% 할당제 얘기도 처음들었고, 자리에 앉아 훌륭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시골에는 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선했던 주신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시골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가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 **오태경**(충북 여성 단체 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근데 선거투표, 개표 과정에 여성이 없다. 선거진행과정 상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참관인의 20% 여성할당제를 건의한다.

〈전국여성대회 참석소감〉



김복희

(제주도청 가정복지국장)

‘가장 용기있는 나이에 접어들었구나!’

2부가 시작되면서 자꾸 빈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만 갔고 우리여성의 힘과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그침이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 전화로 31회 여성대회에 다녀온 소감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응하기로 하였다. 연례적으로 여성들의 큰잔치와도 같은 행사여서 여성공직자의 행운으로 다녀오곤 하는 행사가 바로 전국여성대회라고 하겠다. 이날만은 전국 각계각층 여성지도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필요한 당면과제들을 관철시키고자 다짐을 해보곤 한다. 어느덧 여성대회가 서른 한살이 되어 '가장 용기있는 나이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대회도 나름대로 연륜이 쌓여 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여성대회 개최시에는 지금까지 우리끼리만 하던 방식을 바꾸어 각계각층의 남성 전문가 인사들도 총 망라해 참여시킨다면 우리 여성들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좋은 협조자들의 공감대로 빠른 시간에 척척 추진되어 나가리라 여겨진다.

또 하나 희망사항이 있다면 제2부 순서 프로그램은 우리 국악연주나 우리가곡무대 또는 오케스트라 등 대가들의 연주를 선사해 주

는 문화예술 쪽으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이 행사가 청아한 가을에 낭만과 정서가 물씬한 여운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마다 훌륭한 행사를 이끌어 주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제31회 전국여성대회장이신 이연숙 회장님과 현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성단체협의회회의 무궁한 발전과 주님의 넘치는 은총안에 축복을 빌어본다.





정현숙

(부산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 간사장)

전국여성대회 열기속에서

전국여성대회 참가를 위해 부산 역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몸이 불편하신 이 사님이나 깊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이 사님들이 계시지 않나하는 걱정엔 잠을 설칠 수 밖에 없었다.

작년에는 대전엑스포에 들러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하는 등 회원들의 단합 도모도 하였지만 올해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교실 등 부산여협 자체에 행사가 많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새벽 4시 20분. 서울역에 도착하여 사우나에 들어가 여정의 피로를 풀면서 다시한번 대회참석 준비를 하였다.

이른 아침공기를 마시면서 제일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였지만 아직 행사준비가 완료되지 않아서인지 20~30분간 지체를 하였지만 간사님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에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후 단체기 입장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지역의 각계각층 여성지도자들로 열기가 한층 더해갔다.

김영삼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하여 높아진 여성계

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였다.

백영옥 박사의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강연 중에서 특히 정치개혁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들을 관심있게 들었다. '바람직한 후보자의 조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식 개혁',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들의 발제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들은 우리 부산여협의 정치교실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어서 더 더욱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었다.

2부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의 새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여성주장 100초 발언대는 단상 위에 세워진 두개의 마이크에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주

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이날 발언을 하시는 여성들의 당당하고 떨림이 없는 연설솜씨는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여운이 남는 것이 있다면 멀리 부산에서 어렵게 참가한 대회라서 대회가 끝나도록 자리를 지켰지만 2부가 시작되면서 자꾸 빈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만 갔고 우리여성의 힘과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그침이 고개를 들었다.

여성들이여! 우리의 힘은 우리가 키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임을 잊지마시다.



김선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30년의 연륜을 느낄 수 있었던 제31회 전국여성대회

4년만에 다시 참석한 전국여성대회를 지켜보며 전국대회 연륜에 걸맞게 20대에서 30대로 훌쩍 성장해버린 모습을 대회의 여러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개회식 전에 전국에서 모인 회원단체들의 단체기가 입장하는 모습은 조금은 군대식 같은 어색함이 있었지만 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막강한 전국적 조직의 힘이 느껴졌다.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교육사업에 봉사해 오신 용선봉사상 수상자인 황은순 선생님과 올해의 여성수상자인 거장의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의 모습에서 사회의 숨은 봉사자로서 또 전문가인 문학인으로서 우리 선배들의 귀중하고 큰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대통령의 축사는 내용보다도 축사 그 자체로 여성단체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의 전제회 광명시장과의 대담은 이연숙 회장의 노련한 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소명의식을 가진 반듯한 공직자를 만난 기쁨이 있었다. 중요공직자 인선때마다 어려움이 있었

던 김대통령의 인사중 잘된 인사 작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다.

전제회 시장의 성공적인 사례가 앞으로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

특히 100초 발언대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의 필요성이,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이 일반 참가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표현으로 주장될 때 주제강연과 발제강연의 피드백을 느끼며 나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다. 여성개발원의 여성정책 연구가 여성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물음당할 때 마다 정책화된 실적을 대기에는 어딘가 부족했던 답답함이 확 풀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연구기관들이 이미 그 부분의 문제가 인식되고 정책의 필요성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비해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여성개발원은 아직 우리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정책연구

가 문제를 입증하는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문제의 인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 정부, 대 사회, 대 여성에게 해야하는 과제를 갖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연구가 정부의 행정관료들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특별히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문제인식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힘이 매우 중요하다. 100초 발언대에 나온 참가자들은 단체의 대표가 아닌 일반참가자들인데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에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리 정연한 주장들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우리 여성개발원의 일들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여성문제의 해결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끝으로 전국여성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함께 전국여성대회도 서울에서만 열릴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을 돌면서 개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주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공동대표 이연숙·이미경)는 지난 10월19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여성특위측에서는 이우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자당측 간사인 주양자 의원, 민주당측 간사인 김원웅 의원, 민자당의 강선영, 김해석, 김형오, 박명환, 박종웅, 박주천, 차수명 의원, 민주당의 신진욱, 조세형 의원, 무소속의 강부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여성연대 측에서는 이연숙, 이미경 공동대표, 여협 박영혜 부회장(BPW 회장),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취복(중앙부인회 회장), 서은경(대한영양사회 회장), 여연의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문우(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김숙임

(기독교여성회 상임대표), 한명희(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한국여성정리개발연구소 김창희 소장,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김정숙 이사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최찬희 사무총장, 대한YWCA연합회 이영희 실행위원 겸 프로그램 위원장 등 여성연대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간담회는 이연숙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연숙 공동대표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의 구성 배경 및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이우정 여성특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들이 자각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 는 당부를 하였다.

신낙균 회장이 여성연대활동 경

과보고를 한 후 이미경 공동대표는 1995년 지방의회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으로, 1.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정책 결정직에서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2010년까지 모든 선출직, 임명직에서 한 성이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 정당, 국회 그리고 각종 공공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권고문을 국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줄 것, 2. 본 연대모임은 1995년도 지방의회 여성후보의 공천을 위하여, 전국 기초의회 선거구 중 718개의 복수 당선지역(일종의 중선거구 지역)에서는 반드시 여성을 공천하여 줄 것을 각 정당들에게 특별위원회의 이름으

로 건의하여 주기를 건의하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줄 것,

3. 여성권의 향상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의원들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선순수범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공천할 것,
4.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할당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 및 제언이 있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원웅 의원: 제시되어 있는 사업계획 정도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성연대같은 중앙의 생각과 일선 현장의 의식간에는 큰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실제 선거를 통해 체험했다.

후보를 주려고 해도 하지 않겠다는 여성의 의식을 깨야한다. 남성이 여성 적어주기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 김해석 의원: 후보를 주었을 때 당선되어야 하는데 당선되지 않았을 때의 부담감이 크다.

지역사회에서 표나게 일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득표할 수 있다. 할당을 받기 위해 여성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박주천 의원: 20% 아닌 50% 할당이 당연하다.

여태까지 여성의 권리 제한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를 쥌어내리는 것이 여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선진화된 의식으로 의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투쟁의 자세 가져야 한다.

• 신진욱 의원: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의식이 개선되면 시간이 필요

하다.

• 박종웅 의원: 핀란드의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38%에 이르며 국무위원에도 40%에 가까운 수가 여성이다. 그 나라 여성이 능력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길게 보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56개의 단체가 모여 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

• 김형오 의원: 20% 할당제 요구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특위 남성의원들부터 이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게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한다.

• 김원웅 의원: 핀란드의 경우 여성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다기 보다 할당제가 있어서 여성이 능력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박명환 의원: 이선희의 경우 광역의회 선거시 온갖 장애가 있었음에도 당선되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로 보아 적극적으로 임하면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것이다.

• 조세형 의원: 연대측의 건의사항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를 할당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선할당은 보장하기 어렵다.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추진했으면 한다.



▶ 여성초점 2

본회는 지난 11월 4일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원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인턴사원제를 중심으로 —

김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단기적 시장경제원리와 이윤극대화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실정을 이해한다면, 여대생들은 남자대학생들과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인력 활용의 잇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용관리가 점차 과학화,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인턴사원제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신규사원 채용시 전에 비해 학생이 자라난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각종 bio-factor를 중요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점차 완화시키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정부가 채용차별적 요소를 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경영대권의 핵심인 선발과정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즉 여성, 지방대생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



한 할당채용제 등에 대해서 기업측에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여성이나 지방대학출신의 실력(포괄적인 면에서 동기유발, 애사심, 직장몰입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것을 기업으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는 시그널링(signaling)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의 불연속성, 직무수행범위의 제한 등을 극복하여 생산성

면에서 남성보다 낮다면 굳이 여성의 채용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논리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찬반이 있겠으나, 국가경쟁력,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없는 한 취업기회 면에서의 제약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는 여성이 지닌 취약점을 사회가 공동부담하여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소화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아직도 미국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단기적 시장경제원리와 이

윤극대화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실정을 이해한다면, 여대생들은 남자대학생들과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인력 활용의 잇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적자본의 차별화가 직종분리를 심화시켜 임금, 근로조건, 승진기회가 열악한 부차노동시장에 여성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어도 향후 단기적으로 여대생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차선의 방안은 여성취업에 따르는 열가지의 단점보다 한가지의 장점이 돋보이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윤극대화와 비용최소화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당면한 냉정한 현실하에서 여대생의 취업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사려된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 증대를 위한 네가지 단기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효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학진학시 학과의 선택이 여대생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학과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남녀간 취업률의 격차도 크지만, 여대생 중에서도 그사람이 어떤 계열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취업률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과에 따라서는 성별 격차가 매우 심한 곳, 차별이 거의 없는 곳, 오히려 여대생의

취업률이 없는 학과가 혼재한다.

둘째로 여대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 중 생리휴가를 철폐하는 방안(또는 무급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채용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노력(필요조건)과 여성제에서 생리휴가를 철폐하여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충분조건)이 결집된다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세번째 단기적 실천방안으로는 기업의 신규채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즉 기업의 채용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학교에 설명하여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거나 또는 신규채용대상자를 확보하고 연중 이들을 채용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이 제도의 장점 중 두드러지는 것은 「기업은 학교를 모르고, 학교는 기업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학교를 방문하여 채용적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진 측(즉 학교)으로 하여금 정보를 모르는 측(즉 기업)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self-selection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이 제도는 대학간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

한 경쟁의 강화 등 많은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채용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여성을 보는 기업의 편파적인 시각이 바뀌어져서 채용시 여대생에 대한 차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제도적으로 여성차별적 요소가 많은데 이들 중에서도 문화적 폐쇄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단기적 측면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가사분담, 탁아제도의 빠른 정착, 치안강화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이 개선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의 비연속성 문제가 완화되어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네가지 과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성자신, 범여성계,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계, 가정, 나아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변동추세를 모니터링하는(가칭) 평등기구 등에서 정례적인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제고없이 고학력여성들의 취업증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토론

사회(이정자 본회 근로여성위원장): 이제부터는 여대생 취업활성화 방안과 인턴제 실시가 여대생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표경희(이대 취업지도실장): 먼저 인턴사원제 확산에 따른 여자대학의 현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소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인턴사원 의뢰건수를 이대·숙대·연세대(여학생)를 비교하여 이대가 가장 많았는데도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대우그룹에서도 나오셨지만 올해 상반기 대우그룹의 인턴사원 숫자가 2천3백여명이었는데 이중 여대생의 숫자는 5%에도 못미쳤습니다. 물론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70대 30이고 여대에 공과대학

이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여대생 취업을 37%에 비하면 5% 미만은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또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서 30명 인턴사원을 채용하는데 9명이 서울대, 나머지 9명이 연·고대, 2명이 타대로 여자대학에는 원서한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대학에서 받은 인턴사원의 범위도 일부 어문계, 어문계에서도 영어전공과 경상계의 경영·경제, 전산학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들은 굳이 인턴사원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잘되는 분야로 인턴제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남녀공학에서도 여대생의 추천은 의도적으로 봉쇄되어 10명 추천에 단서를 붙여 예를 들어 남학생 9명, 여학생 1명으로 제한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인턴사원제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

준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턴사원제는 하반기 공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학교간 성별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자신이 투철한 직업관을 갖고, 여대에서도 인문사회계열 편중에서 벗어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여성에 대한 채용기회 및 채용직종, 인력배정의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고 적극적인 직무개발을 통해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육아의 사회화와 고용문제 전담기구설치, 성희롱방지법의 제정 등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것들을 가장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고용

할당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것을 몇 %라도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고용할당제가 여성계에서 제기되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고용할당제와 인턴사원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식(리크루트사 대표): 기업이 국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경쟁력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원제를 비롯한 일반기업체의 채용에 있어서 일자리가 없거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저희 회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여도 추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젊은 구직자들이 변두리에 있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추천은 무시하고 대기업만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이상되는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3D현상이 우리나라에는 벌써 젊은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제 확산이 여대생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험하기에는 남학생보다 20% 이상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의 여대생 비율은 현대와 럭키금성이 3%, 대우는 7~8%, 태평양, 이랜드, 대흥기획, 동화제약이 20~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기업에서 5,000명 가량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모집·홍보에 있어서도 제한적이어서 특정학과, 특정학교를 제외하고는 인턴사원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개최한 공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결과 인턴사원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한 회계·통계의 제도화 방법만이라도 대기업이 공동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의하고 내년 봄, 그 대안이 발표가 되고 실시할 예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당사자인 여대생들도 남성 못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당시에는 남·녀가 능력이 동일하나 근무년수가 높아갈수록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여성고용시장의 확대는 여성자신의 직업의식 고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태(대우그룹 기획조정실 노사팀 차장): 먼저 기업의 고민에 대해서 김교수님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실 종전에는 기업의 인사부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조정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각 사업본부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우그룹이 89년 처음으로 대졸여사원을 채용한 이후 소요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여사원에 대한

소요가 없습니다. 각 사업본부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삼촌, 오빠가 여성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이 인사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인턴사원제가 입도선매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의 방안 중에 여성보호조항 완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월차 휴가를 합치면 20일 이상 됩니다. 그런데 평일날 휴가를 쓰는 여직원은 없지만 보전휴가(생리휴가)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밤낮도 없고 휴일도 없는 현업에서 남성들은 휴사를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팀에서 이탈한다면 팀워크는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대졸여성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남성경쟁률이 8대 1인데 비해 여성은 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뛰어나고 태도면에서도 적극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토목과 여직원은 발파작업에서 배제됐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의식이나 태도가 성장했는데도 제도적으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동(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 단순히 여성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인턴사원제를 중심으로 -

일시: 1994.11.4(금) 장소: 여협 회의실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화와 전체 국가의 효용함수를 높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고 이에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과제를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성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문제는 첫째 공정한 rule이 지켜지지 않고 둘째, 여성이 여성만의 특성(임신·출산·육아)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양자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노동부에서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제거하며, 근로여성의 육아지원,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모집·채용의 차별개선을 위해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시정 조치하며, 일간지의 광고내용을 채용시존에 모니터합니다. 내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현황, 모집의 사실상의 실태를 선별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상의 차별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개선 노력은 정부의 행정지도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자신의 의식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여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공정한 rule이 지켜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해 여성기피 요인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4자인 여성단체는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위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용모를 제한한 44개 업체를 고발하여 기업의 인식을 바꿔 놓은 것은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여성들 30%가 남성들 70, 80%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면에서 할당제는 반드시 도입되도록 여성계에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여성이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라야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김재원 선생님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이나 고용, 발전이 국가발전 계획에 들어가야지 여성만의 노력에 그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점에서 기업도 여대생이 취업전선에 나올 수 있도록 여대에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매스컴에 비친 여성

오도되는 여성들의 삶의 형태

두 드라마는 현대 사회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그리고 있는 주말극이며, 또 각 방송사가 폭력성이나 불륜을 배제하고 건전한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점에서 방영되어지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0월19일 모임을 갖고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KBS2의 '딸 부잣집'(토·일 오후 19:50~20:50)과 SBS TV의 '이 여자가 사는 법'(토·일 오후 20:50~21:50)에 관해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니터한 내용을 토의하였다.

두 드라마는 현대 사회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그리고 있는 주말극이며, 또 각 방송사가 폭력성이나 불륜을 배제하고 건전한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점에서 방영되어지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모니터링한 결과 폭력이나 불륜을 제외한 결과가 억지 코믹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실망감과 현대 여성들의 여러 삶을 비추는 시각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딸 부잣집

보수적이고 완고한 할아버지(전운 분)와 치과의사인 홀아버지(김세윤 분) 그리고 이혼녀 고모(양희경 분)와 다섯 자매가 그리는 가족 드라마다. 외국인 하숙생 칼 토마(이한우 분)까지 한집에서 우왕좌왕 영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지러운데 그 딸 다섯의 짝꿍들의 모습까지 비슷한 비중으로 비추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이렇듯 영겨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또 새

로운 갈등속에 유아무야 묻혀 버리고 말아 도대체 무얼 다루려고 하는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큰 딸 일령(이희향 분)의 경우 능력이 있는 직장 상사임에도 이유없이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조건의 거부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형태의 재연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편(독고영재 분)과의 갈등요인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혼까지의 진

행이 남득키 어렵고 능력있는 여성의 남편들은 꼭 저렇게 무능력해져야만 하는가 싶다.

둘째 차령(하유미 분)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딸들 중 가장 뒤쳐지는 식으로 나왔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정상적인 여성의 표상으로 제시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차령 혼자 10명 가까운 가족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 칼 토마의 입을 통해 "가족의 일을 기쁜 맘으로 하는 차령은 천사 같다"는 식으로 무조건의 희생과 봉사로 일관하는 모습의 여성을 바람직한 여성이 표상으로 내세움으로써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듯해 씁쓸한 느낌이다.

셋째 딸 부부(전혜진과 윤다훈 분) 또한 합리적인 부부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합리를 경쟁으로 왜곡하지 말고 효율적인 입장에

서 보는 긍정적인 합리화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쌍둥이 두 딸(변소정과 이아현 분) 또한 너무나 작위적인 연기로 보는 이를 답답하게 하고 있고 뮤지컬이 아님에도 매회 막내 딸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지나치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이 드라마에는 무성의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연출상의 실수가 여러곳에서 보였다. 셋째 딸의 결혼식 전날 음식을 장만하는데 차령 혼자서 자그마한 후라이팬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로 잔치음식 전부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 수 없고, 9회에서는 치과의 기본 요금은 3,200원인데 2,000원을 내라고 했으며, 12회 방영시 전해진이 냉장고를 여는데 텅텅 비어 있었고 불 또한 켜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4회에서 독고영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냉장고를 여는 데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사소한 부분 같

지만 이 사소한 부분들이 극의 전체 신뢰도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이 여자가 사는 법

부유하면 모두 비정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 텐데도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호화층의 인간 군상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심하게 꼬여있다. 배신자(한혜숙 분)는 남편의 부정을 모르는 친구(이효준 분)의 마냥 행복해 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한편으로 절에 가서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깨끗하게, 곱게 살아가는 작가가 되게 하옵소서"(2회)라고 비는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효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비굴하고 역겨울 정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며느리의 짝사랑 행동이나 절약하는 모습은 호뭇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이 수다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아버지(백일섭 분) 등 이중적 성격의 인물이 주류를 이루며 한가족이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홍학표와 김원희 커플이 보여주는 신세대 모습 또한 이것이 신세대인가 싶을 정도로 어색하고 억지 코믹형태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각자 올 A'이고 B' 이상의 성적을 지닐 수 있는

인물임에도 전혀 지능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 빈번한 '아, 그렇습니까'의 대사로 코미디언이 씨먹었던 것이 어서 식상하고 상사의 '약속은 지키라'는 말에 어찌 어찌해서 안하겠거나 못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그래야만 합니까"하는 식의 말장난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현대 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여성상을 왜곡,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박원숙은 수단이 좋은 재력가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서 아들 모난수에게 "너 미워"라며 어리광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0대의 이효준 역시 끊임없이 자신이 예쁜지 귀여운지 남편에게 확인하며, 시어머니까지 선택하

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20대의 신세대 김원희까지 홍학표에게 "나 귀엽지, 나 섹시하지, 나 예쁘지?"하고 있다. 1, 2회에서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라고 언니를 설득하던 최수지는 4회에는 핑크빛 커튼으로 바꾸고 온 방에 향수까지 뿌리면서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변질됐다. 결국 다양한 연령의 이 여자들은 하나같이 상대방의 평가나 인정여하에 따라 죽고 사는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홀로서 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하는 나약한 모습의 여성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아내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유인촌 분)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아이구, 이 수다"나 "당신은 너무 징그러워"하는 식의 빈번한 방백으로, 그래서 외도를 하게 된다는 식으로 외도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남성위주사회의

사고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전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친구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은 불륜으로 간주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임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두 드라마는 가족을 중심 소재로 하는 드라마이니만큼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라는 점을 감안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 김희천·본회 매스컴 모니터)



‘여성고용촉진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이스라엘 법원, 국영기업이사 여성으로 교체 명령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이달 초 여성단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2개 국영회사 이사직에 3명의 여성을 임명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스라엘의 여성단체 협의체인 여성 네트워크는 지난해 제정된 여성고용촉진법이 국영 기업 이사직에 ‘최대한으로’ 남녀를 공동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이의 시행을 보장하라고 청원했다.

이같은 청원을 심의한 끝에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국영 정유회사의 2개 이사직과 항만 철도회사 이사직에 이미 3명의 남성을 임명한 무역산업장관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용촉진법이 ‘적절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동등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미차 하라시 무역산업장관은 자신이 임명한 3명의 남성들은 최고의 적

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성들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이상 이들을 임명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정부측 이의를 기각했다.

산업장관은 산업부 내에 고위직 여성이 25명이나 있는데도 이들을 국영기업 이사 후보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여성문제 보좌관 나바 이라드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앞으로 국영회사들이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성고용촉진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스라엘의 전국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국영기업 이사직에 선출할 여성후보 명단을 작성해 오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는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에 뿌리박은 현상이므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도덕상은 기존현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평등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맥락에서 고용평등법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여공무원들 장관의 성희롱 고발

호주 시장 최대의 성희롱 사건으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가 물러나고 존 페이 주총리가 사임할 위기에 몰려있다.

집권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페이 총리는 성희롱과문의 주인공인 민주당 소속 테리 그리피스 의원이 내년 3월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에 반대하는 당직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테리 그리피스 전 경찰청 장관은 부하 여직원 9명에게 여러가지 형태의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수개월전 페이 총리의 권유로 장관직을 사임했는데 이들 여성의 항의를 접수한 조사위원회가 최근 3백쪽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해 새로 문제가 확대되자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장관은 여직원들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 했으며 심지어는 젖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업무상 출장중에 여비서에게 동침을 요구해 이를 안 부인이 출장에 여직원을 동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리피스 본인은 여직원들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오랜 습관에 불과하며 이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것도 이들의 업무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같은 동작이 여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그리피스는 경찰업무에서는

유능하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회내 반대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사위원회가 여직원들의 진술만을 청취,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뉴 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는 총리실 내에 정치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이들이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특별 부서를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주교회의, 수녀들의 권한 강화에 합의

로마 교황청의 가톨릭 주교회의는 지난 10월말 교회내에서 수녀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주교회의는 한달간의 논의를 끝내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수녀들이 교회내의 협의 및 결정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일부 수녀들이 요구한 교황청내 고위직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사제직 밑의 어떤 직책을 여성에게 허용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성직자들의 복음전파방식과 복장, 생활방식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으나 여성문제가 관심의 표적이 돼 왔다.

현재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중 72%는 여성인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3백48명의 대표중 여성은 59명에 불과, 교회내 여성의 지위를 반영했다. 회의중 주로 선진국 출신의 수녀들은 가톨릭 교회의 남성지배 종식을 요구하고 교회당국이 여성들의 재능에 눈을 돌려 페미니즘을 교회에 대한 선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질을 갖춘 수녀들이 교회는 물론 교황청 행정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는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에 뿌리박은 현상이므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도덕상은 기존현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평등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평등법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일부 주교들은 여성들도 '평신도 추기경' 자격으로 교황 선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회의기간중 여성성직자 서품을 요구하는 일단의 미국인 수녀들이 교황의 거실 창문 밖 산책도로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이탈리아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만을 사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성을 사제로 서품할 권한이 교회측에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사제는 여성사제 임명 요구가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일 뿐 대부분의 가톨릭 신도와는 무관하다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예수는 단순히 그 시대의 문화규범을 따랐을 뿐이라면서 교회측의 이같은 방어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美선거에서 사상최다 여성의원 탄생 전망

이달 중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인 수의 여성의원들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여성들의 조당적 정치행동 그룹인 전국여성정치회의(NWPC)가 최근 밝혔다.

해리엇 우즈 NWPC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에 1~2명, 하원에 3명 정도와 여성이 추가로 진출 현재 상원 7명, 하원 47명인 의원 수를 사상 최고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36명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에서도 2명 내지 3명의 여성지사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주지사중 여성은 모두 9명에 불과하다.

'여성의 해'로 일컬어지던 지난 92년에는 민주당의 16명을 포함, 모두 19명의 여성이 하원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 여성 할레 불법화
나이지리아는 최근 딸에게 성기절제(할

례) 시술을 시키는 부모를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할레금지법을 제정했다.

군부지도자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은 어린이 보건 향상을 위한 법령의 일부인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같은 관습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지역에서 이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할레로 인해 수만 명의 여성들이 숨지고 수백만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의 퇴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직장서 여성 우월성 입증...영국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성적이 우수하며 성공을 향한 노력에 있어서 보다 열성적이고 훌륭한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도 더 나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런던대학의 리처드 킴벌 교수는 최근 이공계통의 남녀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평가문항의 3분의 2이상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조속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남성들에게 뒤처진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BBC방송은 또 이번 연구에서 흔히 남학생들이 우수할 것이라고 믿는 수학과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조차 여학생들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대학졸업자들에 관한 고용기록을 갖고 있는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성공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도했다.

본회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31회 전국여성대회 •

정무제2장관	금일봉
조선훈 (재정위원)	2,000,000원
한지영 (재정위원)	2,000,000원
이경숙 (재정위원)	2,000,000원
김경애 (재정위원)	2,000,000원
차동수 선생님	2,000,000원
황온순 선생님	2,000,000원
권병우 (제일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500,000원
대한간호협회	300,000원
대한영양사회	500,000원
한국퇴역여군회	320,000원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부회장)	

비디오 및 사진촬영 제공

• 후원금 •

오병미 (부천시바르게살기협회)	10,000원
김정화	10,000원
김옥희 (마산시 합포구청 과장)	10,000원
최영희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0,000원
김금자 (민주자유당 양산군지구당 조직부장)	10,000원
곽병환 (군사관동지회 회장)	30,000원
김명자 (안양시청 가정복지과 과장)	10,000원
정정숙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장)	100,000원
김명숙	10,000원
하회진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100,000원
김선영 (대한여학사협회 부회장)	30,000원
김안자 (경주시 사회사업국 가정복지과장)	20,000원
임현숙 (대한영양사회)	10,000원
김형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상담원)	10,000원
이원선	10,000원

함영자	10,000원
임수련	10,000원
추시경	10,000원
김귀남	10,000원
이정혜	10,000원
권혁임	10,000원
한인석	10,000원
이명희	10,000원
송현주	10,000원
조용자	10,000원
Polly Sauer (한국브리태니커 한국지사)	10,000원
Kim Sarah (한국브리태니커 한국지사)	10,000원
Jennifer Yun (한국브리태니커 한국지사)	10,000원

· 10월호 윤영숙, 김윤선을 윤용숙, 김유선으로 바로 잡습니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군복무가산제 부분 축소 현행 1~2% 낮추기로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을 심의해 온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제60차 본회의에서 제대군인에게 주고 있는 가산점을 6, 7급의 경우 2년 이상은 만점의 3%, 2년 미만은 1.5%, 8, 9급 국가직의 경우 2년 이상은 4%, 2년 미만은 2%로 하며 9급 지방직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제대 군인에게 3~5%를 주던 현행 가산점을 이번 개정안은 7급의 경우 2%포인트, 9급 국가직의 경우 1% 포인트 축소시킨 결과, 완전폐지를 요구한 여성계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총무처는 이번 결정으로 7급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율은 4% 정도에서 1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남성 육아 휴직제 도입

지난 9월13일 노동부는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11조)에 '남성노동자도 배우자인 여성노동자 대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첨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8년 4월1일부터 실시된 고령법 11조의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1년 안에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의 법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27일 남녀 공무원들이 95년 부터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총무처의 결정에 이어 그간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온 육아문제를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나가 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가져올 획기적인 일로 기록된

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장려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맞벌이 부부로 국한해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휴직을 쓸 수 없는 점, 맞벌이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현실적으로 아내 대신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성폭력상담소 2천년까지 12개 신축

보사부는 '오는 2천년까지 성폭력상담소를 12개 신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성폭력특별법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 2개소 및 보호시설 2개소(1개소 신축 중)에 대한 예산 지원도 포함돼 있다. 보사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상담소에는 연 4천5백만원, 보호시설에는 연 6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천년까지 보호시설은 매년 1개소씩 6개 시설을 신축하고 상담소는 매년 2개소씩 1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1단계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보완책은 성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최근에는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음란행위 등 새로운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약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적극 운영키로 한데서 나온 것이다.

정신대문제 해결 촉구 윤정옥 대표, 일본방문

윤정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전 일본군 위안부 등 13명과 함께 지난 9월14일~18일까지 일본을 방문,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귀국했다. 윤 대표는 일본의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국제중재재판을 촉구하는 모임 발대식을 갖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 등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회숙 후원의 밤 열려

민주당 과천시, 의왕시 지구당 이회숙 위원장은 지난 9월27일 오후 6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경마장 복지관에서 '이회숙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이회숙 후원회 회장인 안동선 의원, 고문인 이우정 의원,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 정대철 의원 등 후원인사 50여 명이 참가했다.

여성근로자 의료보험 혜택적어 주양자 의원 국감서 밝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의료보험연합회가 주양자 의원(민자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직장조합이 남성근로자가 많은 직장조합에 비해 평균적립금 보유율이 높은데도 수진율은 낮고 예방사업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들은 박봉에서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조합제정만 불러줄 뿐 정작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의료보험연합회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 "여성근로자가 3분의 1 이상 근무하는 20개 직장조합과 여성근로자 비율이 5분의 1 미만인 직장조합 20개소를 보면, 평균 적립금 보유율은 2백2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수진율은 대체로 남성근로자가 많은 조합에 비해 낮은 3.57%에서 4.35%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포장재 되돌려 주기 운동 주부클럽연합회

사단법인 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에서는 (주)미원과 공동으로 식품포장재 되돌려 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식품의 빈포장지나 용기 10매를 모아오면 미원의 제품과 교환해주는 것. 빈포장지나 용기는 종이, 비닐, 병, 캔 등 재질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10매 단위로 '맛소금' 1백그램, '감치미' 50그램과 교환되고, 우유팩 1킬로그램은 재생지 한 롤과 교환해 준다. 수거된 용기는 재생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하게 된다.

북경 세계여성대회 준비 활발

내년 9월4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NGO한국위원회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될 여성행동강령에 한국의 여성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사전작업을 위해 지난 10월7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황산성 변호사 출판기념회

황산성 변호사가 최근 자전적 고백서 <엄마는 변호사면서 왜 그리 모자라>를 펴내고 지난 11월8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무너진 돌더미 위에 집을 짓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고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엄마는...>는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사법, 입법, 행정을 고루 거친 황 변호사가 화려한 경력으로 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간혹 필요 이상의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 등을 진솔하게 적어 놓았다.

민자당 여성국, 여의도 여성포럼 개최

민자당 여성국(국장 김령자)은 지난 10월25일부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문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여의도 여성포럼'을 개설,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첫 여성포럼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및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자당 의원들과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당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여의도 여성포럼'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와 김영정 전 정무장관(제2)의 '여성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민자당 여성국은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11월), 여성의 정치참여(12월)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내년에는 여성의 취업(1월)을 시작으로 여성과 법, 여성과 교육 등을 주제로 매달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일간지 기사, 여성소의 여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발간된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등 5개 일간지의 여성관련 기사 4백3건에 대해 보도형식, 지면배치, 기사유형, 편집경향 등을 분석한 결과 각 신문이 여전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여성은 남성의 공적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그들의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쉼터> 운영기금마련 장터 열려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이문우)는 지난 10월28일 서울시 중구 장충단 공원에서 매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인 <쉼터>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아홉번째 장터를 열었다.

이번 장터에서는 모두 50여 개 업체에서 협찬하는 각종 물품과 회원 및 일반인들이 기증한 중고 물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장터에서는 특히 포화상태에 이른 쉼터를 확장, 이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개인과 기업체의 후원금도 받았다.

여성단체 실무책임자 연찬회 개최 김영순 정무2차관

김영순 정무2차관은 10월25일과 26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여성단체 실무책임자 40여 명을 초청, 연찬회를 열었다. 여성단체 간의 정보교환과 연대를 도모하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여성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찬회에서 김차관은 여성단체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건전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의원 의정활동 부진은 남성 불협조 탓' 대구여성회 설문조사 결과

대구여성회(회장 이정선)는 지난 4, 5월 두달간 대구지역 남녀 7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식실태조사' 결과 대구시민들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이 한계를 갖는 이유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남성의원의 협력 부족과 수적열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여성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한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민들 대부분이 남성의원의 협력 부족(36.2%), 수적열세(34.2%)를 꼽아 여성의 능력부족 때문(19.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우려의 눈

'직장탁아소 설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직탁추)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0월19일 직장탁아소 설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중 직장탁아소와 관련된 핵심내용은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다는 의무대상사업장 규정사항과 사업주의 현

80% 비용부담조항을 아예 삭제,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적 책임부분이 후퇴노선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왕인순 사무국장은 "현재 5백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천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여성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삭제되면 직장탁아소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오히려 직장탁아소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의욕상실과 함께 부모들의 육아비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금희 (여성신문 기자)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성황리에 마쳐



본회는 지난 10월14일 이화여고 내 류관순 기념관에서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제31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 이 사회를 남녀평등과 인간성이 존중되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김영삼대통령 내외, 권영자 정부제2장관, 김영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윤덕, 양경자 전 국회의원, 최금분 재일대한민국부인회장 등 전국의 여성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단체기 입장을 시작으로한 개회식은 대회준비위원장인 박영혜 부회장의 개회선언, 대회장인 이연

숙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제30회 용신봉사상, 제10회 올해의 여성상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 후에 김영삼대통령의 치사로 개회식이 마무리 되고, 이어 주제강연과 발제강연이 진행됐다.

주제강연은 백영옥 민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정치개혁법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으며, 발제강연에서는 주준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와 강경화 세종대교수, 김선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이 '바람직한 후보자의 요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 식개혁',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1995년이 깨끗한 선거풍토 달성과

한국여성정치참여확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만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전제회 광명시장을 초청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는 1백초동안 전국의 여성지도자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펼쳤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공동대표 이연숙·이미경) 주최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가 지난 10월19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내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95년도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서의 20% 할당제 도입을 위한 정당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내용으로 한 이날 행사는 이연숙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우정 여성특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들이 자각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 '여성초점' 참조)



소비자 교육

본회는 지난 10월27일 2층 회의실에서 소비자모니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윤영화 산업훈련연구소 소장의 '정보화 사회와 여성의 역할' 이기철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훈련부장의 '전기안전을 위한 소비자정보'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본회는 지난 11월4일 2층 회의실에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턴사원제를 중심으로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사

원제가 확산되면서 여대생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진학시의 학교, 학과 선택의 중요성 인식, 생리휴가를 철폐하는 방안과 단기적 실천방안으로는 기업의 신규채용방식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 이장자 근로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토론에는 김현태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노사팀 차장, 민윤식 리크루트사 대표, 표경희 이화여대 취업지도실장, 최기동 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동정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회장은 11월7~10일까지 동경 아사히신문기념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여성포럼(International Women's Forum)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포럼은 東京都와 재단법인 동경여성재단 주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필리핀, 한국, 일본 등 8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도시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내년 동경여성프라자 설립을 앞둔 기념행사이다.



'21세기는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이며 이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 국민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집약될 것'이라고 밝히고 제9회 국제한간호학회 학술대회가 전문직의 성장발전과 국제학술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면서 아울러 회원들의 연대감을 고양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양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전문간호영역의 한 단계 발전과 함께 나아가 한국간호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축사에서 대우·삼성·현대 등 3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펴낸 세권의 책 제목을 비유해 국제화의 효시를 이룬 한국간호가 세계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야망과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용기와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정신으로서 21세기의 밝은 간호를 이룩해 나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19일에는 학술대회 기념 리셉션과 함께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사사카와 보건상을 수상한 김모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축하하는 만찬이 열렸고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 하호욱 대한병원협회부회장, 간호계 원로와 전임회장,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제2회 전문직 여성세미나」와 「'94 BPW 임원연수회」 개최

전문직 여성클럽한국연맹(BPW)에서는 지난 10월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전문직여성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에너지 관리공단과 본 연맹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이 경제·사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 화학연구소 오세화 박사의 '의생활과 세탁을 중심으로 본 가정내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절감대책', 순천향대학교 박영숙 교수의 '식생활과 에너지 바로쓰기', 서울대학교 이기영 교수의 '가정의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관리방안', 그리고 상공부 에너지관리과 김호철 과장의 '신경제 에너지 절약정책 방향'의 순서로 이어졌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 절약 방법과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세미나후 오후 4시30분부터는 94년도 BPW 임원연수가 시작되었는데 「국제화 시대의 전문직 여성」이라는 주제로 전 정부 제2장관이며 BPW 한국연맹 6대회장인 이계순 회장께서 강연을 하였고,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직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걸스카웃 서울연맹장이며 BPW 7대회장을 하신 윤용자 회장께서 강의를 해 주셨다. 그리고 클럽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I. 문서기록 및 회계업무, II.조직관리 및 임원의 역할, III.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본 연맹의 오경자 기획위원장께서 전문직 여성으로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조산협회

제4회 학술세미나 및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실시

대한조산협회에서는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수유'를 주제로 제4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10월6일~7일 부산 한국콘도 크리스탈 대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룹토의를 통해 산전교육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분만교육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준비위원회에서는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전달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산협회에서는 이날 세미나 개최식에서 영세민 가정에게 이웃돕기 성금 70만원을 전달하고 세미나가 끝난후 부산역 광장에서 모유수유 권장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트완다 어린이돕기 성금 30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번 임원 연수회에는 토요일임에도 멀리 지방에서 참석하신 임원들을 비롯해, 여러 임원의 열띤 관심속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연맹 사업에 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지난 10월20일 부터 23일 까지 일본 가나가와 여성센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NGO가 참여하는 제1회 동아시아 여성 포럼이 열렸는데 모두 7개국의 대표가 모였으며 한국에서는 47명이 참가하였고, BPW 한국연맹에서는 박영혜 회장, 강기원 임법위원장, 한태숙 YCW(Young Career Women) 위원장 및 우현주 간사가 참가하였다.

행사는 주로 21~22 양일간 5개 분과의 Workshop 즉, I.Women in Development, II.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II.Women's Human Right, IV.Women and Culture, V.Women and War/Peace를 주제로 이루어 졌는데, I 분과의 Female Labor 부분에서 강기원 위원장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태숙위원장이 I 분과 전체의 서기를 맡았으며, 다시 II분과의 Law for Women 부분에선 강기원 위원장이 한국의 경우에 관해 발표하였다. 박영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은 한국 NGO 위원회의 Contact Person으로서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참여, 전체의 진행을 돌보았으며 폐회시 Closing을 하였다.

편집후기

전국여성대회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네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성수대교 붕괴는 우리네 한쪽 가슴을 멍들게 하였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며 이제 가을이 사라지려 한다. 하지만 '여성들이여, 하나가 됩시다!' 그 진실어린 울림만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修

월간여성 · 1994년11월호 통권324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4년11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권수현/김정수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	김경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회	장연숙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7-707	795-2233
부회	장영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75-304	599-1942
부회	장정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909	783-2924
서기	이옥기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053-944-1300
서기	이희순	중구 을지로3가 지하상가 3구역 근화사 약국(11호)	272-4986
회계	이사식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회계	이양숙	도봉구 수유5동 510-20	356-0071
감리	사김환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561-2630
관리	사김영숙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503-3493
연구	원장정숙	종로구 관철동 260 씨본미용실	732-9585
위원	원장한숙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 청송마을 상원아파트703-1082	0342-713-3078
위원	원장현숙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6	362-3687
위원	원장서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6-1002	0342-701-1436
위원	원장이정	강남구 도곡동 6-17	569-0110
위원	원장박애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505-501	648-2002
위원	원장김	용산구 한강로3가 40-316	792-5050
위원	원장김	강남구 역삼1동 670-12	567-3234
위원	원장김	노원구 중계본동 4블럭 신동아아파트 115동 603호	934-7866

회원단체

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성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성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황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중구 영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영혜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유치원 208호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영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옥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방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동순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동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순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예련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협회	이준연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4층	738-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현순	종로구 창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서은상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김숙향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여성승공연합문	김숙향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김기호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정영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윤수상	동대문구 전동4동 584-29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자	성동구 군자동 327-5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민상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민상	강남구 청담동5 경원하이스트 710호	546-5350

■『복지복권』의 발행수익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부채환(Boonerang) 조차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원시적인 복귀한 수렵사냥터에서 사냥한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고
공공을 위해 활용. 단기간 동안 사냥의 복지로 다시 되돌아 오
고있음에 따라 사냥을 중단한다.



지금 던지십시오. 행운과 사랑의 부메랑,

여러분의 복지복권입니다

1천 2백만 근로자의 푸른꿈을 키우는 복권

사랑의 부메랑은 1등 일천만원 20명, 2등 삼만원 200명, 3등 오만원이 8천6백명에게 되돌아 갑니다. 게다가 신세대 승용차 『세레노』10대와 최신허 배비『위드미』2,000대를 행운의 보너스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500원 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 1천2백만 근로자 들을 위한 공공 근로복지사업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지복권』을 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족들은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잊되지 않도록 더욱 애써 일하겠습니다.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 아침에 태어난 『복지복권』의 수익금 전액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일에 쓰여집니다.

- 근로자 내집 마련 지원사업
- 근로자 종합문화센터와 근로자 휴양소 건립사업
- 근로자 전문 훈련장 및 학사시설 설치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근로자 결혼자금 등 생활안정지원사업
- 중소기업 복지시설 설치자금지원사업
- 이혼여성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사업
- 근로자 평생건강진단사업
- 근로자 정신문화 진흥사업들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기업

근로복지공사



大洲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도전과 개척, 그리고 성장의 13년— 짧은 역사속에서도 오늘날 건축·토목·플랜트·금융·관광레저·화학사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大洲 —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우리의 생활속에서 항상 함께하며, 질 높은 삶의 향기를 드리는 기업, 大洲 — 大洲는 창업 이래 문화예술, 사회복지, 인재육성, 환경보호, 체육진흥지원 등 사회를 위해 가치있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大洲는 국민기업으로의 성장을 향한 도약 2기를 맞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문화기업으로서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大洲建設株式會社

■ 본사: 광주직할시 동구 남동 36-9 TEL: (062) 224-86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1 (한복빌딩 2-4층) TEL: (02) 501-7820

●대주주회 (주) ●대주토건 (주) ●(주)대주랜드 ●두림제철산업 (주) ●(주)대주 ●동양상호신용금고 (주) ●G.M.D ●재단법인 유진음악문화재단 ●광주방송